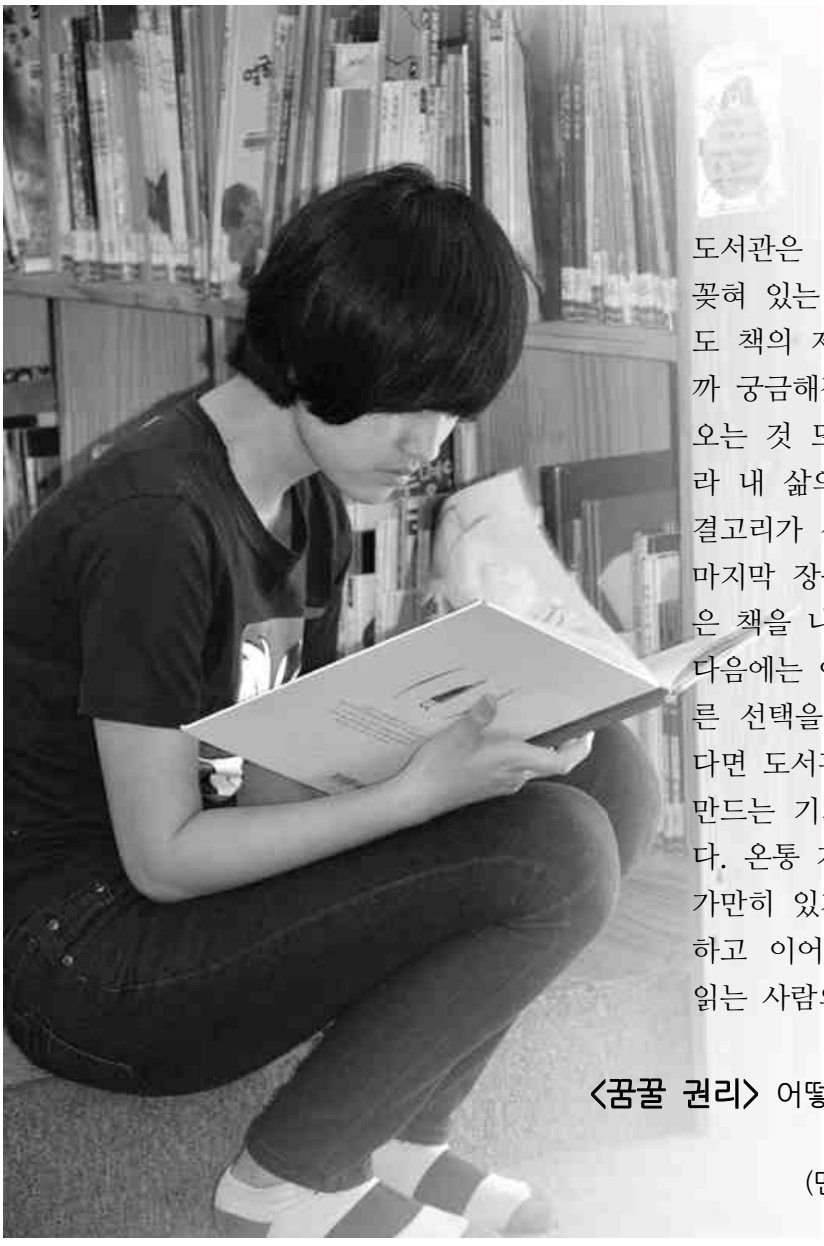
맨발동무도서관

소식지 제36호
2015년 3월 26일
www.maenbal.org

펴낸곳: 맨발동무도서관 펴낸이:고선일 주소:부산시 북구 화명2동 양달로64 전화:051-333-2263



도서관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하다. 빼곡하게 꽂혀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을 고르게 되는 것도 책의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어떤 책이 눈에 들어오는 것 또한 과제로 주어진 것이라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딘가에 관계가 있어서, 혹은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물음표가 떠오르지 않은 책을 나는 지금껏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랬던 걸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도서관은 '필'이 꽂혀서 결국 뭔가를 하게 만드는 기회들로 가득하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온통 가슴을 채우고 취하고 미쳐서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그것을 발견하고 이어서 물음표를 엮어가는 것은 오롯이 읽는 사람의 몫이다.

〈꿈꿀 권리〉 어떻게 나같은 놈한테 책을 주냐고 226p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박영숙 지음 / 알마
(맨발동무도서관 청구기호 **A026.3박64꿈**)

운영시간

수, 목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9시
일,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5시
(월, 화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마을 사람들과 후원자들이 함께 일구어 가는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튼튼하게 설 수 있는 나눔에 함께 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부산은행 313-01-000558-7 맨발동무도서관

2014년 맨발동무도서관 한해살이 보고 드립니다.









맨발동무도서관의 9살 한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책과 사람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활동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맨발동무도서관의 생각이 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와 공간, 일상사업과 문화활동 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바쁘고, 활기차게 2014년을 보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서관의 생각을 전달하기 보다는 의견을 듣고 소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서관답지 않게 소란스럽거나 혹은 어수선할 때도 있어 불편해하는 이용자도 계셨지만, 다양한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일 낮의 도서관은 엄마와 아기, 오후에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기 전 우르르 몰려들어온 청소년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채우고 있고, 주말이면 아빠와 함께 책을 보는 아이, 아장아장 서가를 잡고 걷는 아기부터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2014년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답니다.

도서관의 일상사업 속에서 마을과 이웃이 만나서 관심과 배려를 배우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도서관이 하는 일이라면 늘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며 기꺼이 함께 해주시는 이용자와 후원자, 자원활동가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 주셔서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도서관 친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에도 활기차고 풍성한 도서관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맨발동무도서관

도서관의 책

자료수집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00여권의 자료가 맨발동무도서관에 들어와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맨발동무도서관의 자료는 단행본 23,623권, 비도서 1,044개, 정기간행물 1,473권(33종)으로 총 26,140개입니다.

주제별로는 문학책(그림책 포함)이 14,037권으로 전체 자료의 약 54%를 차지하고, 예술책(만화책, DVD 포함)이 4,583권(약18%), 사회과학책이 1,862권(약7%)를 차지합니다. 어른과 중등 이상 청소년이 볼 자료가 7,574권으로 전체 자료의 29%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서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학나눔에서 보내준 우수문학도서(165권)를 비롯하여 이용자 및 출판사에서 기증해주신 자료들(약 600권의 기증자료 중 80여권 등록)과 신청도서 목록, 작은전시회 주제(말, 청소년, 교육, 문화다양성, 동학, 여행)에 따른 책들을 검토하면서 서가를 채워나갔습니다.

장서점검을 통해 낡거나 파손된 책(120권)과 분실도서(174권), 2년이 지난 과월호잡지를 비롯하여 묵은자료(238권)와 복본도서 등 약 650여권의 자료를 제적하였습니다.

자료대출 2014년에는 1,078명이 새로 도서관의 대출회원으로 가입해서 12월 31일 전체 회원수는 9,311명이 되었습니다. 총 252일 개관하여 하루 평균 42명의 이용자들이 약 140권의 자료를 대출했습니다.

개관일	대출자 수	대출자료 수
252일	10,684명	35,286

지난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자료는 그림책 〈까만 크레파스〉와 조정래 장편소설 〈정글만리〉입니다. 〈우아한 거짓말〉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내 심장을 쏴라〉 등 영화로 개봉된 원작 소설과 드라마로 화제를 일으킨 원작 만화 〈미생〉은 예약이 끊이지 않는 등 미디어에 노출된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재미있게 읽었던 그림책을 추천받아 〈365 그림책 달력〉을 만들고 나눔자리 옆에 책과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기대출도서 *괄호 안의 숫자는 대출횟수

분류	대출자료
어른책	정글만리1(36) 우아한 거짓말(30) 홈패션 소품 59(17)
그림책	까만 크레파스(40) 무지개 물고기(30) 장수탕 선녀님(27)
아동책	고양이학교 1부-1(20) 심술쟁이 내동생 싸게 팔아요!(19)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19) 사춘기 가족(17)
DVD	미래소년 코난(32) 라푼젤(28), 몬스터대학교(28)
만화책	미생(22) 마녀(20) 안녕?! 자두야!!(16)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16) 신과 함께-신화편(16)



도서관의 문화활동

매일 도서관에 오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도 도서관에서 머물고 있는 이 친구가 얼마 전 재미난다방 이층 다락방에 앉아 책을 보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일이 어떻게 깜짝 놀랄 일이냐고 생각하겠지만, 매일같이 도서관에 오면서 한 번도 스스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본적이 없었던 터라 〈다이어터〉라는 만화책에 빠져 "밥먹자"는 말에

“이거 조금만 더 읽고”라고 대답을 하던 그날 그 친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누구나 책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누군가가 서가에서 꺼내어 든 책 한권으로 위로받고 한걸음 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만나며 책과 사람이 ‘삶의 부드러운 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도서관 문화활동의 중심은 책과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 모아 ‘책과 이야기로 소통하는 도서관’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한 해 동안 이용자들을 만나며 책을 읽고 낭독하고 이야기하는 도서관의 책문화활동을 꾸준히 펼쳤습니다.

책문화활동 매일, 매주, 매달 맨발동무도서관 곳곳에서 책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4시에 책을 읽어 준다고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처음 도서관에 오신 부모님들은 4시가 되면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도서관의 풍경을 낯설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도서관 마치는 시간이 되면 들려오는 ‘하루를 닫는 잘가요 낭독’ 소리도 이제는 익숙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2, 4주 토요일 오후 빛그림과 옛이야기가 살아서 다가왔던 찰방찰방(25회), 1주 금요일 저녁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낭독 달빛극장(8회)에 많은 친구들과 어른들이 함께 했습니다.
엄마와 아기들이 그림책으로 놀아보는 ‘달강달강’은 이용자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 4주 금요일 밤마다 영화 만났던 맨발극장(23회), 도서관 옆 쌈지공원에서 열렸던 라면극장(2회)에서 책 너머의 책을 만나는 즐거움에 푹 빠져보았습니다.

매주 수, 목요일에는 한반나들이가 열려 29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천리, 화명, 명덕, 김해대감초등학교 35개 반 친구들이 도서관에 놀러 왔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 오후에는 대천리중학교 독서동아리 친구들이 도서관으로 찾아와 함께 책읽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으로 오기 힘든 곳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평화의 집, 정화양로원, 그린경로당으로 매주 찾아갔습니다. 양산중학교 2, 3학년 꿈키움교실로 5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책읽어주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상 위에서 들려오던 밑줄낭독회, 시와 청소년 작가를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던 작가강연, 그림책으로 상상의 산책길을 걷게 되었던 그림책공연, 작품 속 현장으로 떠나본 문학기행 등 다양하게 책을 만나보았습니다.

밑줄낭독회	그리미 ‘나를 그리다’(5/16) 시간여행 ‘내가 만난 이순신’(12/12)
작가강연	김진경 〈고양이 학교〉(5/14) 이옥수 〈파라나를 꿈꾸다〉(8/9) 이창숙 〈무옥이〉(10/23) 조향미 〈시인의 교실〉(11/12)
책공연	이야기꾼의 책공연 〈노란궁전 하품공주〉(7/4) 이야기봄 〈보글보글 마법의 수프〉(12/21)
문학기행	청소년 문학기행(8/22~23) 〈동피랑 아이〉, 유치환의 시 ‘다시 갑오년, 사람이 하늘이다‘(9/13) 〈서찰을 전하는 아이〉, 〈웃방데기〉

마을과 소통하기 마을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사업들로 더욱 풍성한 도서관 풍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평상너머에서는 배낭여행 안내자 김현호님과 서른 여섯에 꿈을 찾은 소리꾼 송소란님을 만났습니다.



7월 12일에는 300여 명의 마을사람들과 함께 도서관 아홉 살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7월에는 청소년 도서관에서 하룻밤, 8월에는 가족을 위한 도서관에서 하룻밤이 열려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밤새 책을 읽고 영화를 보거나, 소곤소곤 이야기로 도서관의 밤을 즐겼습니다.
반면 다사다난했던 사회적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더불어 행동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 세월호 등을 주제로 한 작은 전시회와 〈탐욕의 제국〉, 〈블랙딜〉 공동체상영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현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문화다양성 북콘서트, 교육감선거, 세월호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청소년과 만나기 몇 해 전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찾아오고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2014년에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기획했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신입중학생학부모 도서관 나들이와 청소년 특강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작가강연, 1박2일 청소년 문학기행, 청소년 도서관에서 하룻밤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또래끼리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 끝난 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어 보는 와요데이가 마을어른들의 후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로만 지적하고 있는 '화장'을 이제는 청소년 문화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화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진행된 '청소년미용특강'이 열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원사업 2013년에 이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리는 찾아가는 찰방찰방 예술단'〉이 진행되어 1기 18명, 2기 25명의 청소년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문학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마을 예술가와 떠나는 '내 안의 역사쓰기'〉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6명의 마을 예술강사와 15명의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예술적 도구로 내 안의 역사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고, 그 이야기로 북콘서트를 열어 마을사람들과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14 책사회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길잡이 활동으로 부산지역의 책동아리 모임을 지원했습니다. 원북원부산운동 공모사업,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작가강연과 부산지역 4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도서관의 사람

후원자 2014년 한 해 동안 410명이 72,028,3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중 정기후원을 해주신 분은 한걸음 후원회원 399명, 큰걸음 후원회원 11명, 60,531,000원으로 전체 도서관 재정의 38%에 이릅니다. 입니다. 65명이 신규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9명이 증액, 14명이 후원을 중단하셨습니다. 기업후원으로 베이직하우스에서 5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기부해 주셨고, 롯데마트 화명점에서 매달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의 후원으로 이야기꾼의 책공연 〈노란궁전 하품공주〉와 라면극장이 열리고, 학교선생님들의 후원으로 청소년을 위한 와요데이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수익사업, 장날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인 기부로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자원활동 새로 자원활동을 시작하신 10명을 포함하여 어른자원활동가 98명, 청소년 자원활동가 78명이 도서관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2014 우수 자원봉사 수요처로 선정되어 상장과 포상금 50만원을 수여했습니다.

동아리 7개 어른독서동아리, 4개 자원활동동아리 5개 초,중,고등 동아리에서 80명이 매주 모여 책을 읽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초등고학년 동아리 〈햇살을 보자〉가 모임을 시작해 매주 10명의 친구들이 햇살 아래에서 책읽기, 몸놀이, 나들이로 재미나게 1년을 보냈습니다. 중등동아리 〈해바라기〉도 3명의 구성원으로 모임을 했고, 고등동아리 〈우행시〉도 그림책을 읽고 커다란 책을 만들어보며 도서관을 즐겼습니다.

상근실무자 관장 1인, 사무국 1인, 문화기획 2인, 사서2인 총 6명의 상근실무자가 도서관 일상서비스와 문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모임과 회의, 워크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4 회계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2014.1.-12.	항 목	2014.1.-12.
이월금	4,786,619	**사업비**	
후원금		-장서구입비	20,151,730
-한걸음 후원	44,601,000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2,997,840
-큰걸음 후원	15,930,000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729,940
-비정기후원금	11,497,300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5,000,000
지원사업		-프로그램비	13,378,820
-2014 부산시 사립도서관 운영지원	30,000,000	-소식지, 홈페이지	3,080,000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15,000,000	-2013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57,645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3,000,000	**관리운영비**	
-강연료 및 원고료	7,969,710	-인건비	56,242,550
-기타 잡수입	7,840,033	-지급임차료	6,600,000
		-수도광열비	6,798,795
		-지급수수료	6,085,573
		-소모품비	1609,240
		-통신비	1,342,000
		-제 운영비	4,639,430
		지 출 합 계	158,713,563
		통 장 잔 액	1,888,469
		2014 지원사업 집행잔액	22,630
수 입 합 계	160,624,662	합 계	160,624,662

2014년 후원자 명단

(주)두영씨앤알, 강다인, 강다임, 강동임, 강명순, 강명희, 강미숙, 강민준, 강상윤, 강소영, 강재은, 강정각, 강정희, 강창래, 강 탑, 강헌식, 강현미, 강호열, 고강록, 고도예, 고선일, 고은영, 골방수다, 공나희, 공민기, 공인표, 공재현, 공정현, 구동관, 구석태, 구희경, 권규빈, 권규태, 권성규, 권순용, 권애경, 권오준, 권정미, 권태연, 권해정, 그리미, 김강민, 김경미, 김경숙, 김경임, 김경한, 김경현, 김경희, 김규리, 김규태, 김금란, 김나래, 김나영, 김나현, 김단아, 김도연, 김동희, 김마루금, 김명석, 김명희, 김미경,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민서, 김민선, 김민아, 김민재,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부련, 김상영, 김상우, 김샛별, 김선옥, 김설희, 김성현, 김세연, 김소연, 김소희, 김송아, 김수미, 김수빈, 김수인, 김수정, 김수현[화명1], 김수현[화명2], 김슬뫼, 김영대, 김영숙, 김옥자, 김용휘, 김유민유성, 김윤성, 김은경, 김은규, 김은유, 김자윤, 김재우, 김정미, 김정숙, 김정우, 김정호, 김종남, 김지양, 김지연, 김지우, 김 진, 김진서, 김채민, 김채연, 김채원, 김 철, 김초은, 김태숭, 김필곤, 김한결, 김한곤, 김한슬, 김현경, 김현길, 김현숙, 김현진, 김혜선, 김희선, 남교욱, 남수경, 남언영, 남윤경, 남윤주, 노국래, 노미애, 노현석, 노현창, 늘푸른요양병원, 대천성당자모회, 동양스틸(주), 라면극장, 류도정, 류민임, 류수민, 류수한, 류윤지호민, 류은진, 류종필, 마이다스정보시스템, 메리퀸의원 조지희, 몸살림, 무명, 문정림, 문정주, 문찬웅, 문 홍, 박경선, 박경영, 박경희, 박민경, 박민서, 박민성, 박서영, 박선재, 박세민, 박세준, 박수진, 박승현, 박영수, 박영숙, 박유진, 박윤아, 박은주, 박이정, 박이제, 박재석, 박정원시현, 박정희, 박종명, 박종은, 박주연, 박준석, 박지현, 박창희, 박채린, 박철수, 박철호, 박태운, 박한규, 박현희, 박형주, 박효경, 박효주, 박희영, 박희원, 박희정, 박희진, 반경수, 배은정, 배진용, 백경옥, 백미연, 백복주, 백선미, 백선우, 백시내, 백정원, 백혜원, 변서연, 변선남, 변성환, 부산참빛학교 학부모회,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빈효리, 뻘, 서만식, 서문교, 서민석, 서민우, 서민호, 서수진, 서예원, 서인해, 서정란, 서정숙, 서정혜, 서희원, 설정희, 성기찬, 성림산업, 성백석, 성영애, 성은아, 세솔엔지니어링, 소담어린이집, 소용범, 소현우, 손민정, 손유진, 손은경, 손혜성, 손혜원, 송암종, 송현복, 시간여행, 시네북, 신선향, 신승학, 신예은, 신원희, 신은제, 신지현, 심민희, 심양진, 씨네북, 안기석, 안미란, 안승지, 안양수, 안재홍, 안학수, 안향신, 안현주, 양부석, 양시모, 양윤실, 여태종, 영광도서, 예나영, 오동만, 오성혁, 오승준, 오원화, 오유진, 오정욱, 오정현, 오즈어린이치과 김승미, 오지훈, 옥종석, 우서현, 우인수, 우인숙, 우종헌, 유선화, 윤경훈, 윤도경, 윤말임, 윤서준, 윤선생부산북부센터, 윤성아, 윤소연, 윤승희, 윤웅중, 윤정현, 윤종경, 윤주영, 윤진희, 윤현숙, 윤현진, 윤희종, 이경화, 이기동, 이나경, 이다윤, 이만형, 이명희, 이명희, 이미남,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화명2], 이미영[화명3], 이병록, 이보람, 이복순, 이봉우, 이봉협, 이상석, 이상희, 이선민, 이선희, 이성구, 이성민, 이성은, 이세경, 이수민, 이수분, 이수아, 이수원, 이수정, 이순일, 이슬비, 이승민, 이승진, 이시우, 이야기봄, 이엘리야, 이연비, 이연옥, 이영진, 이예은, 이욱상, 이원희, 이유민, 이윤남, 이은미, 이은주, 이은채, 이은희, 이재훈, 이정민, 이정화, 이정희, 이종창, 이준희, 이지윤, 이지현, 이진서, 이진우, 이진희, 이 창, 이창숙, 이창우, 이창원, 이태향, 이하늘, 이하은, 이한승, 이행지, 이현주, 이현준, 이 환, 이희주, 임기훈, 임민준, 임수연, 임숙자, 임순희, 임유진, 임재윤, 임정옥, 임창영, 임희수, 장리태, 장명희, 장미정, 장서현, 장수지, 장연지, 장유나, 장유민, 장윤정, 장은영, 장지원, 장혜선, 전나영, 전미경, 전복순, 전상진, 전선경, 전수환, 전용선, 정경미, 정경환, 정규세, 정대규, 정명선, 정미숙, 정미정, 정서희, 정성숙, 정애자, 정연이, 정영수, 정영숙, 정은교, 정은주, 정의현, 화목부동산 정이영, 정재일, 정찬주, 정 철, 정하나, 정하름, 정한섭, 정해선, 정현옥, 정혜숙, 조명희, 조미령, 조민성, 조상희, 조선영, 조수민, 조양순, 조영화, 조오근, 조원영, 조은정, 조인현, 조정아, 조준우, 조해우, 조 협, 주수현, 주지완, 주현자, 지승민, 지승연, 진예슬, 진예얼, 차영임함민국동국, 찰방찰방예술단, 채경식, 채병훈, 채유정, 채후불, 책꼬시랭이, 책마녀, 책보수, 최가영, 최경원, 최귀순, 최명임, 최서홍, 최선영, 최성영, 최수원, 최숙인, 최숙진, 최순희, 최승진, 최아련, 최영아, 최예린, 최옥연, 최은경, 최은진, 최은혜, 최이숙, 최재은, 최정민, 최정순, 추양식, 커다란책 만들기,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하상욱, 하석원, 하승우, 하태욱, 하현승현서, 한수미, 한연섭, 한지연, 한진경, 해산한의원(양산) 주재용, 허명남, 허 승, 허임정, 홍세진, 홍지형, 황경미, 황성현, 황혜승, IMS Corporation 김명철

2014년 자원활동가 명단

어른 자원활동가 97명 3,722시간50분

강명순 86시간, 강미은 6시간, 강재은 18시간, 강현미 3시간, 고유리 29시간, 공구표 25시간, 공나희 1시간 30분, 공민기 15시간, 구동관 4시간, 권순용 48시간, 김금란 68시간, 김나영 2시간, 김란 211시간 30분, 김명남 14시간, 김미란 83시간30분, 김미숙 90시간30분, 김미영 14시간, 김민선 3시간, 김민정 86시간, 김민지 38시간, 김보미 14시간, 김상영 25시간, 김선옥 4시간, 김소미 9시간, 김수미 50시간, 김아름 8시간, 김양숙 15시간30분, 김영미 53시간30분, 김영애 4시간, 김영임 49시간, 김예빈 91시간, 김예지 20시간25분, 김옥자 11시간, 김정원 39시간, 김현숙 24시간30분, 김형우 3시간, 김희선 53시간, 남윤경 17시간, 류예지 11시간, 류종필 4시간, 박경선 150시간30분, 박미정 41시간 10분, 박민경 66시간 30분, 박수진 65시간, 박정희 4시간, 박현희 4시간, 박희원 28시간, 배수빈 28시간, 백시내 76시간, 백자현 18시간, 서정란 121시간30분, 서정혜 43시간30분, 성기동 18시간, 성은아 14시간, 손예림 30시간30분, 신혜윤 8시간, 안향신 43시간30분, 양윤실 11시간, 우종헌 4시간, 유복술 12시간, 윤도경 8시간, 윤재환 2시간, 이경화 45시간30분, 이경희 31시간30분, 이다현 28시간, 이미래 4시간, 이미영 53시간, 이상희 306시간, 이선민 51시간, 이선희 31시간, 이수정 158시간, 이승주 13시간, 이은영 19시간, 이현아 28시간, 임희수 4시간, 장빛나 19시간30분, 장윤정 9시간, 장준영 81시간 30분, 장희령 62시간, 전세린 12시간, 정상인 103시간15분,정애자 153시간, 정엄지 28시간, 정영수 5시간30분, 정철 6시간, 정현옥 48시간, 조명희 44시간30분, 조수정 24시간, 조영화 2시간, 조은정 27시간, 주현자 4시간, 채은 11시간, 최서영 8시간, 최윤숙 5시간, 한미나 1시간, 홍세진 132시간, 황덕영 15시간30분

청소년 자원활동가 78명 1,894시간 50분

강미경 15시간, 강선영 33시간, 강지원 5시간, 강호준 4시간, 구윤아 15시간, 김가빈 38시간, 김가슬 23시간, 김가은 40시간, 김경민 37시간, 김경임 67시간, 김고은 1시간, 김다연 30시간, 김단아 24시간, 김도형 3시간, 김보경 11시간, 김보나 11시간, 김상현 41시간, 김소연 39시간, 김영현 13시간 30분, 김유정 22시간, 김은결 56시간30분, 김자윤 20시간30분, 김지민 19시간, 김지섭 24시간, 김진태 6시간, 김한솔 16시간, 김현서 10시간, 김형민 10시간, 김혜란 8시간, 김혜원 9시간, 박기준 27시간, 박성민 4시간, 박소희 6시간, 박지윤 15시간, 박지훈 10시간, 박희경 50시간30분, 백정원 27시간, 손정원 24시간, 승다연 1시간, 심재민 33시간, 양현영 24시간, 오영림 25시간, 오채린 47시간, 오태린 40시간, 유희상 6시간, 윤규빈 47시간, 윤소영 52시간30분, 윤철현 17시간, 이경은 17시간, 이동진 12시간, 이린아 24시간, 이수빈 15시간, 이승민 9시간, 이연경 1시간, 이연주 40시간, 이지수 1시간, 이지현 24시간, 이채영 29시간20분, 이휘원 36시간, 임진주 32시간30분, 임채훈 6시간, 장빛나 3시간, 장샛별 53시간, 전효원 1시간, 전효주 31시간, 전희원 12시간30분, 정원희 7시간, 정지은 20시간30분, 조민영 21시간, 조준우 57시간, 천홍태 9시간, 최서현 39시간, 최수정 42시간, 최인서 16시간, 최재은 62시간30분, 최지안 23시간, 하현서 66시간, 하현승 77시간

자원활동 시간

자원활동 역역	인원	활동시간	자원활동 영역	인원	활동시간
열람대출 및 서가정리	42	856시간 45분	도서관행사-생일잔치 등	39	289시간30분
수서 및 자료정리	33	601시간 25분	기타 자원활동	10	289시간30분
책문화 프로그램	49	1,685시간40분	어린이청소년	78	1,894시간50분
총합계	174명 5,617시간40분				

※영역별로 중복 집계된 인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정명철님, 반갑습니다~!



도서관의 친구를 만나보는 두 번째 시간.
도서관 이용자로 오셔서 큰걸음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정명철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화명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며,
네 자녀의 아버지로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도서관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제가 전에 경남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대천천을 따라서 걷다보니 맨발동무도서관이라는 아주 이쁜 이름을 가진 도서관이 있어서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서관이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이웃으로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맨발동무'의 의미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좀 소란스럽지는 않던가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떠들 수도 있으니까요. 일반도서관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엎드려서 볼 수도 있고, 누워서 볼 수도 있고, 계단에서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볼 수도 있고…,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죠.

도서관에서 어떤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다락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회원가입을 하면서 바로 큰걸음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어요. 그렇게 선뜻 마음을 내어 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 가까운 이웃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 하고, 두번째는 저는 드물게 아이들이 많은데 아직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나이에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었죠.

도서관에서 기억에 남는 시간은?
사실 마음은 시간나는 대로 휴일에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만큼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했던 〈보글보글 마법의 수프〉 책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야외에서 영화 상영할 때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딱 한번 라면극장에 함께 했는데, 그날 좀 추워서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어떤 바램이 있으신가요?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 달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번이든 행사를 해서 책을 쓴 분들하고 만나게 한다면 아이들이 책만 읽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요? 관심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서관 행사를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라!

빅스톤갭의 작은 책방

(웬디 웰치 지음 / 책세상 / 2013)

더 좋아하는 일을 위해 '중요한' 일을 그만두고
훌쩍 떠난 적이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더불어,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5p.)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추구하는 행복의 요건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마다 머리와 가슴속에 '행복한 삶'에 대한 그림을 막연하게나마 품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삶이 과거에 꿈꿨던 바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현실은 때때로 퍽퍽하고 고단한 밥벌이일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은 '언젠가는……' 이라는 꿈을 꾸며 저 너머 구름위의 성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책에 나오는 한 부부는 어느 날 안정적인 직장도, 도시의 편리한 생활도 과감히 버리고 한 탄광촌 작은 마을에 들어가 헌책방을 차렸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인의 살을 깎아먹고 제 살을 깎아 먹는 독사굴 같은 삶'에서 벗어나, '언젠가 책방을 내야지!'라고 상상했던 막연한 꿈을 결국 실현한 것이다. 그 일이 결코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보다 좀 더 평화로운 곳에서 행복하고 숨 가쁘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절실함이 컸고,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어도 작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머리가 아닌 가슴을 따라 겁 없이, 뭣 모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직장과 편리한 도시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선택을 한 웬디와 잭 부부의 이야기는 귀촌 성공기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이룬 이들의 자기계발서이기도 하고, 헌책방을 개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의 과정과 마케팅 비법을 소개한 경제경영서이기도 하며, 지역공동체와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소상인의 부흥과 건전한 소비를 역설하는 사회과학서이기도, 책과 독서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학서이기도 한데, 나에게 이 책은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 보고서이자, 마음 속 꿈을 찾아 언젠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 편지 같았다.

'테일스 오브 론섬 파인' 이라는 이름의 이 책방이 마을에 자리 잡히기까지, 그리고 이들이 '빅스톤갭' 마을의 진정한 주민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시골 마을에서 책과 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책에 대한 애정을 가진 애서가 부부의 순수한 열정과 꿈 때문이었다. 단지 자신들만의 만족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함께 기쁨을 얻는 아주 소박하고도 선한 꿈 말이다.

책방에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작한 뜨개질, 글쓰기 등의 작은 모임과 소규모 콘서트 같이 작지만 알차게 준비한 행사들은 제대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없는 무료한 폐광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사람들이 모여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 특히 무겁게 짓누르는 마음 속 깊은 고민들을 편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지적인 선술집'과도 같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걸 보며 이들이 정말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혼자서 아등바등 살 때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함께 즐기는 유쾌한 행복'을….

그리고 힘들고 지쳐서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후회가 되는 날에는 책방 문을 열었던 첫 마음을 기억하려고 사명선언문을 읽는다.

테일스 오브 론섬 파인
헌책방 겸 뮤직 앤드 인터넷 카페 사명 선언문

1. 우리는 공정한 가격에 좋은 책과 음악, 공예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

2. 우리는 공정한 수익을 올리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

3. 우리는 고객 편의와 우리 사생활 간의 균형을 적절히 맞춘 영업시간을 준수하기로 한다.

4.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의 선택을 돕고,
고객에게 조언을 해줄 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한다.

5. 우리는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될 것을 맹세한다.

6. 우리는 헌책 판매가 새 책 판매도 중고 판매도 아님을 알며, 헌책 판매가 돈 벌기 어려운
장사임을,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신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고객과 우리 모두 즐겁고 유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한다.
(47-48p.)

책을 덮으며 '아, 이런 게 바로 내가 꿈꾸는 삶이야!'라고 부러워하면서도,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맴돈다.
마을도서관에서 지내고 있는 나는 어쩌면 웬디와 잭 부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인데, 바쁜 삶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첫 마음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일 때는 분명 오늘의 나를 꿈꿔왔을 텐데, 막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언젠가는 나도...' 하며 또 다른 삶을 부러워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끊임없이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지금 속한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결론을 내리며 이 책을 권한다.
(그래서 이 책은 "떠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일단 한 번 읽어보시라는 말 밖에….)

행복은 당신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당신을 찾아 거리를 헤매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 페르시아 시인 하피즈 -
(21 p.)

-앨리스

얘들아~,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

추운 듯 춥지 않은 듯 오묘한 겨울이 지나고, 평상너머로 산책 나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봄이 왔습니다.

'봄' 하면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설렘이 가득 느껴집니다. 도서관의 일상 속, 열람실 곳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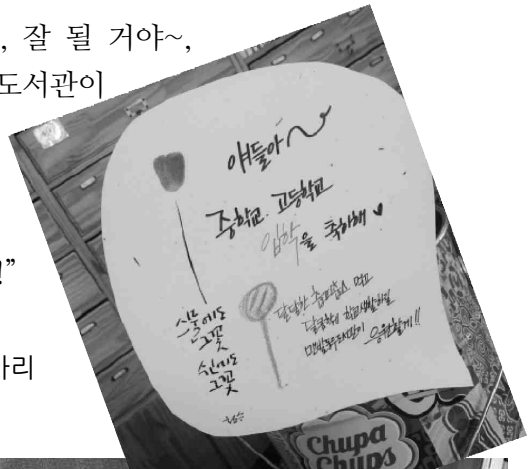
두근두근 설레임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예비초등학생 도서관 나들이 시간. 이야기방에서 깔깔대는 웃음소리, 그림책을 낭독하는 소리, 재잘재잘 이야기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친구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책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작은 손에 책을 꼭 쥐고 나오는 친구들의 얼굴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처럼 발그레합니다.

나눔자리 한 모퉁이에 빨간 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물어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언니, 오빠들 축하하고 응원해주는 사탕이 들어 있는 통이야." 학교 마치면 늘 도서관에 와서 복작복작 놀던 아이들이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중학생 된 게 엊그제 같은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제법 선배다운 티가 납니다. "입학한 첫 날 교복 첫 개시는 꼭 도서관 아줌마한테 보여줘!"라는 말을 기억하고 찾아와 멋들어지게 교복을 입은 모습을 선보여주는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열람실 한 편. 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가 오랜만에 도서관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잘 보이지 않아 고등학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뜸하나 했다며 말을 건네니, 왈칵 눈물을 쏟을 듯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또 다른 것 같다며, 생각했던 거 보다 더 힘들다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모습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많이 애쓰고 있구나,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 친구, 새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겠지만, 재미있는 추억들도 만들어 나가겠지요. 봄꽃을 피울 꽃망울이 봄비도 맞고 햇볕도 쬐며 하루하루 커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떼고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서관이 쉼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얘들아~, 잘 될 거야~,
맨발동무도서관이
너희들의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할게!"

-메아리





매애~ 양떼가 도서관에 왔어요

2015년 청양띠 해를 맞아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도서관 서가에 숨어있는 양과 관련한 책들을 모아 〈작은전시회〉를 열고, 새해 소원을 적은 나만의 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은전시회 때 진행했던 '책 속에 숨어 있는 양그림을 찾아오면 연체를 풀어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27일에는 마을의 쿵쿵어린이집 친구들이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어른들, 아이들 모두 행복한 201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활동가 식구가 늘었어요

1월 30일과 3월 10일에는 어른자원활동가 새식구맞이가, 2월 28일에는 청소년자원활동가 새식구맞이가 진행되어 10명의 어른자원활동가와 16명의 청소년 자원활동가가 새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입고 도서관 구석구석에세 정성스런 손길을 보태주고 있는 새식구들 덕분에 도서관이 한층 활기가 넘칩니다.



예비초중등 학부모교실

3월 아이의 입학을 앞두고 아이들만큼 설레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예비 초중등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5일(수) 오전 10시30분 예비중등 학부모교실은 김해중앙여자중학교 상담교사 조양순 선생님이, 2월 27일(금) 오전 10시30분 예비초등학부모교실은 올해 구포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신 박순기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는 길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비초등학생 도서관나들이

2월 26일(목) 오전 10시30분, 초롱초롱 호기심 어린 눈망울의 8살 친구들 28명이 예비초등학생 도서관나들이를 왔습니다. 학교는 유치원과 뭐가 다르지?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면 어쩌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커다란책과 빛그림으로 학교이

야기를 만나보고 화명초등학교 김선영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1학년 친구들의 재미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얘들아, 잊지 않을게~!

아직 해결되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요낭독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2월 17일부터 진행중입니다. 3월 7일(토)과 12일(목), 13일(금)에는 〈천개의 그림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 타일만들기로 맨발동무도서관과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100장의 타일그림을 그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타일은 416 세월호사건 1주기에 팽목항 방파제에 기억의 벽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서 빨리 세월호사건이 해결되도록 마음을 모아봅니다.





소식과 달력

2015년 지원사업

도서관의 장서와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해줄 3개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마을의 청소년, 어른들이 책으로, 문화예술로 한 판 신명나게 놀아보면 좋겠습니다.

- 부산시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장서구입비와 프로그램비 지원)
-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인문학, 삼시세끼를 차리다'(3월 21일~12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중고등학생 30명)
- 2015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마을 예술가와 함께 쓰는 '드로잉 에세이'(4월 2일~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혹은 토요일, 어른 15명)

가는 봄소풍

맨발동무도서관의 동아리가 모두 모여서 벚꽃핀 낙동강길도 걸어보고, 재미난 놀이와 이야기로 도서관의 밤을 밝혀봅니다. 동아리원들은 예쁘게 꽃단장하고 모두모두 모여라~!

- 언제 : 4월 4일 토요일
- 1부 봄날소풍(오전 10시, 북구보건소 다리밑) 낙동강변 따라 꽃피는 '호포 가는 길'
- 2부 도서관 소풍(저녁 7시, 맨발동무도서관) 도서관으로 떠나는 소풍놀이 '봄바람 났네'

책 없는 세상을 원해요~!

맨발동무도서관과 어린이책시민연대, 푸른바다 아이쿱생협이 탈핵강연과 공동체상영을 엽니다. 더불어 765kv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법률지원 기금모금을 위한 〈7650원 봉투〉 모금도 함께 합니다. 탈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탈핵강의〉
- 언제 : 4월 21일
- 강사 : 김혜정(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공동체상영〉 밀양아리랑(감독:박배일)
- 4월 29일 오전 10시30분 (푸른바다 생협)
- 4월 29일 저녁 7시30분 (맨발동무도서관)

동아리와 함께 할 진 당신을 기다립니다~!

책을 통해 누구나 친구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싶은 분,
맨발동무도서관 동아리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찰방찰방 예술단	그림책을 같이 읽고, 찰방찰방 공연도 해요 / 수요일 오후 1시
책보수	도서관의 책은 내게 맡겨~! /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책모시랭이	책을 읽고 수다로 풀어보기 /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골방수다	직장인을 위한 저녁 책모임 / 1,3 주 목요일 저녁 7시 45분
청춘의 독서	청년독서모임, 꽃다운 청춘만 가능 / 첫모임 4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지지고 볶는 청소년 동아리	'밥 먹고 놀자!' 14~19세 청소년 12명 / 금요일 저녁7시, 매월 4번째 일요일 마을밥집에서 분식집 열기
햇살을 보자	바람과 햇살이 친구되는 즐거운 책읽기, 초등 5~6학년 독서동아리 / 금요일 오후 5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맨발동무도서관을 후원하고 지지해주신 도서관의 친구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몸후원을 해 주셨습니다(1월~2월)

4시 책읽어주기 한미나

나누미, 서가정리 고영미, 김 란, 김상영, 김양숙, 김예빈, 김정원, 김채현, 신아영, 안향신, 이선희, 조은정, 최영화, 한미나

서지입력/라벨작업 김상영, 서정혜, 정현옥

맨발극장 장준영

서가제작/시설보수/후원자의 벽 권순용, 정철

찰방찰방, 초등/유아한반나들이 손혜성, 백자현, 안향신, 이선민, 정현옥, 홍세진

찾아가는 프로그램 안향신, 이수정, 홍세진

자료보수 강명순, 김명남, 김미란, 김민정, 김예지, 이상희

책싸기 김미숙, 김주영, 정유주

커다란책 김다애, 김영임, 김희선, 박경선, 서정란, 이소명, 이슬기, 장희령, 정애자

이야기봄 공구표, 김금란, 김란, 김희선, 박수진, 백시내, 장준영, 홍세진

기타(사무지원, 수익사업, 홍보, 가방만들기 등)
강명순, 김민정, 박경선, 이상희, 이승주

컴퓨터 유지관리 노치웅

어린이/청소년 강가연, 김경임, 김상준, 김상현, 김유빈, 동원준, 박문경, 박의경, 이아란, 조신행, 최재은, 한진영

기증해 주셨습니다

■도서기증

고선일, 김경미, 김미란(손혜림), 박효경, 박희경, 산지니 출판사, 신지현, 안미란, 오동흠, 윤자명, 이은영, 장명희, 장윤정, 장임정

■물품기증

한미나(곰국), 고영미(커피믹스), 황규홍(비타500), 김재수(두유 2박스), 반송느티나무도서관(화과자), 계명대 문정과 이승아/정유진(비타500), 이은영(각종 차와 커피 많~이), 정지영(빵), 노치웅(책찾는 컴퓨터, 햄버거), 김민선(햄버거), 채은(커피원두), 홍성진(호두과자), 장수지(차), 화명2동 재개발조합(떡), 최화순(커피), 새마을금고(멸치1박스), 박금주(커피 쿠폰), 정영수(커피, 녹차), 김정은(맛있게 볶은 커피원두)

• 후원자 **김윤성**님을 찾습니다. 몇 년 동안 도서관 통장으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으로 연락주세요.

• 예비초·중등 학부모교실과 예비초등학생 도서관 나들이 강사로 김선영, 박순기, 조양순 선생님께서 재능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름이 빠진 분은 꼭 연락주세요. 다음 소식지에 싣겠습니다. 맛있는 먹을거리와 귀중한 물품을 많이 가져다 주셨는데 다 챙겨 싣지 못해 죄송합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새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1월 공현주, 권민성, 변미혜, 서민석, 이나경, 정서연, 현나라

2월 김수현, 양명순, 양정이, 이은정

증액 김미란, 이은희, 정이영

■온라인여성의류쇼핑몰 스타일온미에서 5,00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롯데마트 화명점에서 매월 300,000원 물품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정기후원(2015년 2월 28일 현재)

200,000원 늘푸른요양병원

100,000원 (주)두영씨앤알, IMS Corporation, 고선일, 권순용, 동양스틸(주), 메리퀸의원, 성림산업, 오즈어린이치과, 해산한의원(양산)

50,000원 강정각, 우종헌, 이은희, 정이영,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홍세진

35,000원 윤종경(공기청정기렌탈요금)

30,000원 공나희, 김경미, 김경현, 김민지, 김선옥, 김용휘, 김 철, 문정주, 박재석, 안기석, 양명순, 이미애, 임유진

20,000원 강재은, 강호열, 고도예, 고은영, 공인표, 권정미, 김미란, 김미숙, 김송아, 김영대, 김현진, 박경영, 박영숙, 배은정, 서수진, 손혜원, 안현주, 윤경훈, 윤승희, 윤진희, 이미남, 이봉협, 이승진, 이연옥, 이욱상, 이재훈, 이정민, 이창우, 이창원, 이행지, 정현옥, 채경식, 최은경

15,000원 성은아, 이나경, 추양식

10,000원 강명순, 강상윤, 강정희, 강탑, 강현미, 공재현, 구동관, 구희경, 권애경, 권오준, 권태연, 권해정, 김경한, 김금란, 김단아, 김동희, 김명희, 김미영, 김민서, 김민주, 김부련, 김상영, 김소연, 김소희, 김수미, 김수현 화명1, 김수현 화명2, 김영숙, 김옥자, 김은경, 김은규, 김정미, 김정호, 김지양, 김지연, 김지우, 김필곤, 김한곤, 김현숙, 김혜선, 김희선, 남교욱, 남윤주, 노미애, 노현석, 노현창, 류도정, 류은진, 류종필, 문흥, 박민경, 박영수, 박은주, 박정희, 박지현, 박창희, 박철수, 박철호, 박태운, 박현희, 박형주, 박효경, 박효주, 반경수, 배진용, 백미연, 백선미, 백선우, 백정원, 백혜원, 변미혜, 변선남, 빈효리, 서민석, 서민호, 서인해, 서정숙, 설정희, 성기찬, 성영애, 소담어린이집, 소용범, 손유진, 손은경, 손혜성, 송암종, 신선향, 신승학, 신은제, 안미란, 안양수, 안재홍, 안향신, 양부석, 양시모, 양윤실, 양정이, 오정현, 우인수, 유선화, 윤도경, 윤성아, 윤주영, 윤현진, 윤희종, 이미영화명2, 이미영화명3, 이병록, 이보람, 이봉우, 이상희, 이선민, 이선희, 이성구, 이성은, 이세경, 이수분, 이순일, 이시우, 이영진, 이윤남, 이은미, 이은정, 이은주, 이정화, 이정희, 이종창, 이지상, 이태향, 임기훈, 임순희, 임재윤, 임정옥, 임창영, 임희수, 장명희, 장미정, 장서현, 장연지, 장은영, 장지원, 장혜선, 전나영, 전미경, 전수환, 정경미, 정대규, 정명선, 정서희, 정성숙, 정애자, 정영숙, 정의현, 정철, 정하름, 정한섭, 정혜숙, 조명희, 조민성, 조상희, 조양순, 조영화, 조오근, 조원영, 조은정, 조정아, 조협, 주수현, 주지완, 주현자, 채병훈, 채유정, 채후불, 최귀순, 최성영, 최수원, 최숙진, 최순희, 최승진, 최영아, 최옥연, 최은진, 최이숙, 최정순, 하석원, 하승우, 한연섭, 한지연, 허명남, 허승, 현나라, 홍지형, 황경미

5,000원 강미숙, 강민준, 강소영, 강헌식, 공민기, 공현주, 구석태, 권규빈, 권규태, 권민성, 김경숙, 김경희, 김명석, 김상우, 김슬뫼, 김윤성, 김은유, 김자윤, 김재우, 김정우, 김진, 김진서, 김채연, 김채원, 김한결, 김한슬, 김현경, 김현길, 남수경, 남언영, 남윤경, 류민임, 류수민, 류수한, 마이다스정보시스템, 문정림, 박경희, 박민성, 박승현, 박이제, 박종명, 박종은, 박주연, 백경옥, 변성환, 서문교, 서예원, 서희원, 손민정, 송현복, 신지현, 심민희, 예나영, 오성혁, 오승준, 우인숙, 윤말임, 윤서준, 윤선생부산북부센터, 윤정현, 윤현숙, 이경화, 이기동, 이다윤, 이명희, 이복순, 이수원, 이승민, 이연비, 이원희, 이준희, 이지윤, 이진희, 이현주, 전상진, 전용선, 정규세, 정미정, 정연이, 정영수, 정은교, 정은주, 정재일, 정찬주, 정해선, 조선영, 조수민, 조인현, 조준우, 조해우, 지승민, 지승연, 진예슬, 진예얼, 최경원, 최명임, 최서홍, 최선영, 최숙인, 최예린, 하태욱, 한수미, 한진경, 허임정

3,000원 김수현 화명2, 김종남, 박민서, 박이정, 박희원, 박희진, 신원희, 이엘리야, 이은채, 정서연

2,000원 권성규, 김수인, 이진우, 장유나, 장유민, 황성현

1,000원 강다인, 김규리, 김규태, 김민아, 김성현, 김세연, 이슬비, 이진서, 이하늘, 이한승,

■일반후원

하효기 20,000원, 하현승 20,000원, 하현서 20,000원, 김자윤 30,000원

